

**담당 : 홍보팀 임정수 차장ㅣ Mobile : 010-7680-8653 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1R 오후조 주요선수 코멘트**

**문정민, 이정민, 유현조, 홍정민(경기 종료 기준)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KB금융 스타챔피언십 |
| 2 | 기 간 | 2025년 9월 4일(목) ~ 9월 7일(일) |
| 3 | 장 소 | 블랙스톤 이천 [북 코스(OUT) / 서 코스(IN)]  |
| 4 | 주 최 | KB금융그룹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5억 원 (우승상금 2억 7천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722야드(예선), 6,718야드(본선) |
| 8 | 참가인원 | 120명 |
| 9 | 주요출전선수 | 유현조, 신다인, 홍정민, 이예원, 노승희, 박현경, 방신실, 김민선7, 이동은고지우, 박지영, 이가영, 김민주, 배소현, 박혜준, 고지원, 박보겸, 김민솔김시현, 송은아, 서교림, 박민지, 임희정, 이다연, 안송이, 전인지, 박예지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(생중계) | [1라운드] 08시 ~ 18시[2라운드] 08시 ~ 18시(SBS 지상파 16시-17시)[3라운드] 09시 ~ 16시[최종라운드] 09시 ~ 16시 |

**◈ 1R 5언더파 67타 단독 선두 문정민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10296>

**소감?**

원래 내가 정말 어렵게 생각하는 코스이기도 하고, 오늘 특히 핀 위치가 많이 어려웠는데, 샷도 공략대로 잘 나와줬고, 퍼트도 잘 떨어져줬다. 핀 위치가 어려워 평소보다 안전하게 공략했더니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다.

**중지로 바뀐 코스 영향도 있나?**

그렇다. 사실 양잔디에서는 아이언 거리가 왔다 갔다 하는 편이라, 중지로 바뀌어서 오히려 더 편하다. 중지로 바뀌면서 거리 컨트롤 하기 쉬워졌다.

**컨디션?**

어렸을 때부터 발목이 좋지 않다. 발목 인대 쪽에 통증이 있는 편이라 고생하고 있는데, 최근에 좋아졌다.

**남은 라운드 각오?**

일단 첫 날 끝난 것이라 일희일비 하지는 않고 싶다. 내일 핀 위치도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는데, 내일도 안전하게 공략하면서 플레이하다가 기회가 오면 잡겠다.

**◈ 1R 4언더파 68타 공동 2위 이정민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7434>

**소감**

오늘 전체적으로 핀 위치가 어려워서 최대한 홀 상황에 따라 공략하려 했다. 무조건 안전한 플레이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공략하다 보니 잘 됐다.

**노보기 원동력?**

전략의 힘이라고 생각한다.

**코스?**

잔디가 정말 잘 관리되어 있어서 놀랐다. 아이언 샷이 원하는 대로 가서 좋았다.

**이런 코스에서는 아이언샷이 중요하다고 하는데, 아이언을 잘 치기로 유명한 이정민에게 유리한가?**

아이언 샷이 좋으면 그린 경사가 심한 코스에서 분명 유리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. 하지만, 메이저 대회는 아이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잘 해야 한다.

**메이저 대회에 대한 압박감은?**

없다. 메이저 대회도 하나의 대회와 같다고 생각하면서 플레이하려 노력한다. 물론 메이저 대회가 상금도 크고 역사와 권위도 있는 대회인 것은 분명하지만, 그렇다고 해서 평소 루틴과 다르게 특별히 무언가를 하면 나는 더 안되더라.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좋다.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어느 대회든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 믿고 있다.

**남은 라운드?**

내일도 핀 위치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, 내일은 첫 조라서 컨디션만 관리 한다면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

**◈ 1R 2언더파 70타 공동 6위 유현조(디펜딩챔피언)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10146>

**소감**

핀 위치가 정말 어려워서 똑똑하게 공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고 플레이했다. 공격적이기보다는, 타수를 잃지 않는 것에 집중했고, 찬스가 왔을 때 그것을 살리려 노력했더니 노보기 플레이가 나왔다. 만족한다.

**만족한다고 했는데, 그럼 오늘 플레이에 몇 점을 주고 싶은지?**

그래도 70점 정도 주고 싶다. 빠진 30점은 2미터 쇼트 퍼트 하나 놓친 것과 아이언 샷이다. 오늘 아이언 샷의 리듬이 급했다. 아무래도 과정보다 결과, 성적을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.

**어제 프리뷰쇼에서 우승 스코어 15언더파를 예상했는데,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?**

그린 주변이 수월해지긴 했지만 메이저 대회 답게 핀 위치가 어려워 15언더파까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.

**내일 각오?**

오늘처럼 핀 위치가 어렵다면 스코어를 줄이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. 타수 잃으면 흐름이 끊기고 끊긴 흐름을 다시 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내일도 코스 공략에 신경 쓰겠다.

**◈ 1R 이븐파 72타 공동 23위 홍정민(現 위메이드 대상포인트, 상금순위, 평균타수 1위)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750>

**소감**

오늘 버디도 많이 했지만 보기도 많이 해서 아쉬운 하루였다. 사실 알러지 때문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 연습을 잘 못해서 원하는 샷과 공략을 해내지 못했다.

**상태 어떤 건지?**

어떤 것에 대한 알러지인지 지금 검사해서 알아보고 있다. 간지럽고 아프기까지 한데, 그래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. 선수라면 버텨야한다는 생각으로 플레이하고 있다.

**남은 라운드?**

지금 내 상태에서 위로 얼만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남은 라운드에서 컨디션을 끌어올려 순위도 최대한 끌어 올리겠다.

**예선 통과만 하면 10억 돌파인데?**

아직 다른 대회도 많이 남았고,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이 대회에서 10억 원을 돌파해야 하겠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다. 일단 컨디션 회복에 집중하면서 신중하게 플레이할 것이다.